

비상경제장관회의

24-4-1

(공개)

#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

2024. 2. 26.

관계부처 합동

# 순서

I.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..... 1

II. 후속조치 이행현황 ..... 2

III. 향후 추진계획 ..... 3

## I. 민생토론회 주요내용

- ◆ **속도·주거 환경·공간 혁신**을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, 지역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「**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**」 수립 추진

\*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: 1.25(목) 10:00~11:30 / 의정부 시청

- **(전국 GTX)**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및 다핵분산형 메가시티 조성
  - (1기 GTX) A노선 수서~동탄 구간 개통('24.3)을 시작으로 '28년 완전 개통,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B노선 '30년, C노선 '28년 개통 추진
  - (2기 GTX) 연장 노선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등을 통해 임기내 착공 추진, 신설 노선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및 '35년 개통 추진
  - (지방 GTX) 대전~세종~충북(가칭CTX)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,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 적극 발굴
- **(신도시 교통 개선)**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길 조성으로 삶의 질 제고
  - (권역별 대책) 수도권 서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('24.1)을 시작으로 수도권 북부·동부·남부권 등 권역별로 릴레이 교통대책 마련
  - (이동 편의 제고) 출퇴근 시간대 2층 전기버스 및 전세버스 집중 투입,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, 버스전용차로 운영 등 추진
  - (집중 투자)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(약 11조원)를 활용한 집중 투자 및 사업 절차 개선으로 광역교통시설 완공 시기 단축
- **(철도·도로 지하화)**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
  - (철도 지하화)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,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공간 구조를 재설계
  - (지하 고속도로)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본격화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

## II. 후속조치 이행현황

### 【 전국 GTX 시대 】

□ **(GTX 1기)** A노선(수서~동탄) 개통 준비, B·C노선 착공 관리 철저

- (A노선) 시설물 검증(1.31), 열차 출고 및 시운전(2.16), 영업시운전(2.23)
- (B노선) 재정구간 착공을 위한 환평 심의(2.8), 민자협약안 실무 협의(2.22)
- (C노선) 착공기념식(1.25) 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회의(격주)

□ **(GTX 2기)** A~C노선 연장 구체화, D~F노선 5차망계획 반영 준비

- A·C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착수(A, 2.5 / C, 2.26)하고, 관련 지자체인 경기·충남도와 협력 MOU(장관, 2.22)

□ **(지방 x-TX 등)** 선도사업 조속 추진 및 추가사업 발굴 착수

- (선도)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예타 신청(2.15), CTX 거버넌스<sup>국장급</sup> 구축(국토·대전·세종 등, 2월)
- (추가)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·금융사 등 16개 기관 간담회(2.15)

- 강원권 광역철도 용문~홍천 예타 조사 착수(2.7)

### 【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】

□ **(권역별 대책)** 서부권 김포골드라인 단기 대책 수립(1.25), 후속조치

- (광역버스 증차) 국비(2.6억원) 배분 확정(1.26), 준비상황 점검(2.1, 2.22)
- (골드라인 증편) 예산교부 검토 중, 철도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 중(~5월)

□ **(제도개선 등)** 「광역교통법」 하위법령\* 개정(절차 진행 중)

\* 지구 지정 후 1년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수립, 연차별 투자계획 의무화 등

-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·간담회(대광위원장, 2.14)

### 【 철도·도로 지하화 】

□ **(철도)**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(부산, 2.13 / 대전, 2.16)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표명하고, 향후 추진 일정 설명

□ **(고속도로)** 경부('23.2), 경인('22.5) 지하고속도로는 예타에 지속 대응하고, 다큐 방영(TV조선, 2.11) 및 전문가 기고(서울경제, 2.21)

### Ⅲ. 향후 추진계획 (상반기까지 단기계획)

◆ GTX, 지방철도 등 과제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 향상

#### 1 수도권 GTX 본격화

- **(1기) A노선**(수서~동탄)은 사전점검\* 후 차질 없이 개통(3월末)하고, 이를 위해 A노선 - 버스·지하철 등 연계교통체계 마련·홍보(3월)
  - \* 정부합동 無 시나리오 실전훈련(3.15) / 지자체·교통약자·일반국민 점검(3월 2~3주)
- B노선은 재정구간 용산~상봉 착공(실시계획 승인 후 3월初)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쏙 구간 착공(민자사업 협약안 민투심 심의, 2.27)
- C노선은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(공정관리협의회 구성, 3월) 철저
- **(2기) A·C노선** 연장을 위한 타당성 검증 등 절차\*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, B노선 연장(지자체 부담 방식)을 위해 가평·춘천시 협의(계속)
  - \* A-C 연장 타당성 검증용역(~'24.7) → 위수탁협약 체결('24.12) → 설계('25) → 착공('26)
- D~F 신설은 지자체·업계 설명회\*를 마무리(5월)한 후, '5차 국가 철도망 계획' 반영을 위한 검토 착수('24.6~)
  - \* 1차인천, 2차경기 남부·충청, 3차경기 동북부, 4차경기 동남부·강원, 5차서울, 6차업계

#### 2 지방 광역철도망

- **(x-TX)** 선도사업 예타·민자적격성 조사, 추가 사업 지속 발굴
  - **(선도사업)**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(기재부 협조)
    - 충청권 급행철도 CTX는 시행자가 제안서(매주 국토부 협의 중)를 제출하는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 의뢰(4월)
    - \* 국토부·지자체·업계 협력 및 이슈 해소를 위해 "CTX 거버넌스 운영"(1차회의, 2.28)
  - **(추가사업)** 지자체 설명회(4월) 등을 통해 추가 급행철도 사업을 발굴하고, 5차 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 착수('24.6~)

- **(광역철도)** 울산권 태화강~송정 착공('24.6), 구미~경산 철도는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로서 올해말 개통을 위해 격주 단위 공정관리\*
  - \* 공정관리 TF 운영(철도투자개발과장<sup>長</sup> 및 철도공단,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참여)

### 3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

- **(권역별 대책)** 서부권(김포) 및 3개 권역별 맞춤형 대책 적극 추진
  - **(서부권)** 김포~서울 광역버스 4개 노선을 개통(3~6월)하고, 올림픽대로\*에 버스전용차로 도입(6월) 및 김포골드라인 증편\*\*(6월)
    - \* 환승거점인 당산역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계한 환승센터 확충(6월 준공)
    - \*\* 6편성 순차 투입(시각 3.1분 → 2.5분, '24.6~'25.3) + 5편성 추가(시각 2.5분 → 2.1분, '26末)
  - **(서부권 외)** 수도권 동·남·북부 교통 불편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(6월)
- **(제도개선 등)**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「광역교통법」 개정\*(발의 협의 중)
  - \* 재원 효율적 관리(LH 계정 신설),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확대, 도로 직접 인·허가 등
  - **(편의 제고)**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확대(<sup>現</sup>46개 + 20여개 노선, 4월) 하고, 2층 전기 버스 연말까지 순차 투입(월별 4~5대, 올해 50대)
  - **(인프라 구축)**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\*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(2월)하여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 확정(6월)
    - \*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지구 핵심 교통인프라 32개 사업(약 7.4조원)

### 4 철도·도로 지하화

- **(철도 지하화)** 3월부터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본격 착수
  - 연내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(6월)하고, 지자체로부터 제안(6~11월)을 받아 선도사업 대상 검토
  - 학계·연구기관·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, 지자체와 권역별 협력기구를 운영(3월~)하여 내실있게 계획 마련
- **(지하 고속도로)**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(3월~), 지하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(세미나, 2월)